입학사정관제 선발 대폭 확대

47개 大 2만695명…작년의 4.5배

전남대 428명·조선대 419명 뽑아

2010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신입생 선발이 크게 확대된다.

정부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재정 지원을 하는 전남대·조선대·광주교대·광주과기원 등 전국 47개 대학이 이 전형으로 2만695명의 신입생을 뽑는다. 이는 지난해 40개대 4천555명과 비교해 4.5배로 늘어난 것이다.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입학사정관 지원 사업과 관련, 올해 예산을 배정할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 모집 전형을 합산한 결과, 입학사정관 숫자는 40개대 203명에서 47개대 360명으로, 선발 규모는 4천555명에서 2만695명으로 증가했다.

입학사정관은 성적 위주가 아닌 수험생의 잠재력과 발전 가능성, 대학이 필요로 하는 인재 등을 평가해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각 대학의 대입 전형 전문가를 말한다.

전남대는 입학사정관에 의한 신입생 선발 인원을 2009학년도 120명에서 2010학년도 428명으로, 조선대는 121명에서 419명으로 각각 3.5배 가량 대폭 늘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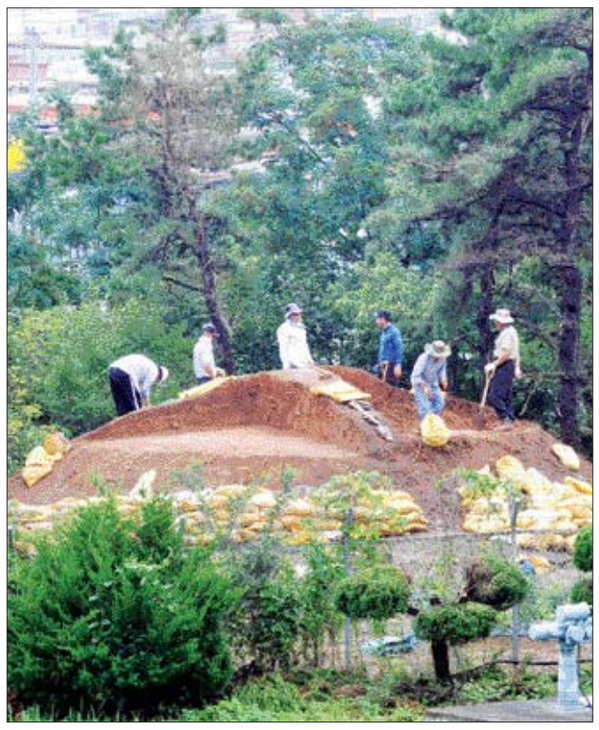
올해 신규 지원대학으로 지정된 광주교대는 2010학년도부터 입학사정관으로 50명을, 광주과기원은 100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 목포대도 처음으로 60명을 선발한다.

모집 인원은 교과부가 올해 재정지원을 할 대학의 선발 계획만 집계한 것으로, 전국 대학의 입학사정관제 모집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연세대가 2010학년도 1천377명(2009학년도 571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뽑으며 중앙대 1천289명(28명), 고려대 1천55명(163명), 카이스트 1천20명(113명) 등이 1천명 이상을 입학사정관에 의해 선발한다.

또 ▲서울대 331명(294명) ▲이화여대 660명(183명) ▲성균관대 995명(627명) ▲경희대 678명(97명) ▲한국외대 674명(46명) ▲한양대 660명(15명) ▲울산과기대 600명(252명) ▲숙명여대 554명(16명) ▲한동대 529명(116명) ▲동국대 518명(124명) ▲서강대 517명(231명)▲건국대 325명(89명) ▲가톨릭대 303명(94명) ▲포스텍 300명(73명) 등으로 대부분 주요 대학이 모집 규모를 지난 해 보다 크게 늘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호남문화재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15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정수장 인근 야산에서 마한시대로 추정되는 고분 1기에 대해 시굴작업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마한시대 추정 고분 광주 각화동서 발굴

호남문화재연구원

광주 도심에서 마한시대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이 발견돼 문화재 조사발굴 연구기관이 시굴(試掘)작업에 나섰다.

15일 문화재 조사발굴 연구기관인 호남문화재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 6일부터 광주시 북구 각화동 173-2번지 일대에서 백제 이전의 마한시대로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1기에 대해 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름 13m, 높이 4.5m의 이 원형 고분은 문화동 시화(詩畵) 문화마을 조성사업 과정에서 발견됐다. 연구원은 고분의 위치와 형태로 미뤄 백제 건국 직전의 마한시대 고분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오는 24일까지 이 일대 350㎡에 대한 시굴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시굴 초기단계여서 아직까지 출토된 유물은 없다.

호남문화재연구원은 고분이 누군가에 의해 도굴당한 적이 없을 경우 많은 유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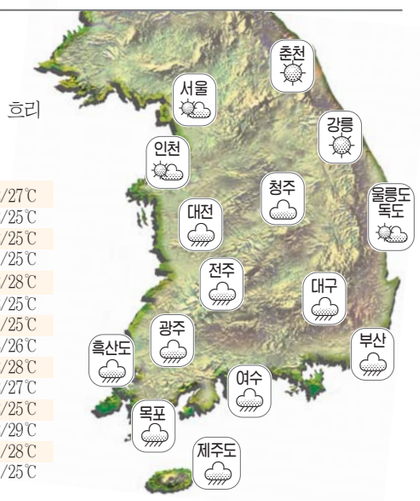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0분 해짐 19시 47분 달뜸 --시 --분 달짐 13시 44분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흐리고 비가 오겠다.

광 주	흐리고 비	22/27℃
목 포	흐리고 비	22/25℃
여 수	흐리고 비	22/25℃
완 도	흐리고 비	21/25℃
구 례	흐리고 비	22/28℃
해 남	흐리고 비	22/25℃
장 흥	흐리고 비	21/25℃
고 흥	흐리고 비	23/26℃
순 천	흐리고 비	22/28℃
영 광	흐리고 비	22/27℃
진 도	흐리고 비	22/25℃
전 주	흐리고 비	22/29℃
남 원	흐리고 비	21/28℃
흑산도	흐리고 비	21/2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1.0~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1.5~2.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보통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서~서	1.0~1.5m
먼바다	남서~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5~2.5m
먼바다	남서~서	1.5~2.5m

	밀물	썰물
목포	07:35 20:36	00:42 13:15
여수	02:09 15:39	08:52 21:21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7(금)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날 씨						
최저/최고	23/29	24/29	23/31	23/31	24/29	23/29

송원고 자율고 지정

내년부터 8학급 280명 모집

광주 송원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로 지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거쳐 송원고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송원고는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학년당 8학급 280명(남녀공학)을 모집해 운영하며, 오는 9월까지 입학전형안을 마련해 10월께 학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대상은 중학교 내신성적 등을 고려한 일반전형 80%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20%다.

송원고는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에서 5년 단위로 평가를 해 재지정 여부를 심의받게 된다. 송원고는 학생 선택형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영어활용 생활화, 1인 1악기 다루기, 교과별 동아리 등 특성화된 심화교육 등을 할 계획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학파라치제 시행 1주일

개인교습자 신고 '봇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 경감대책으로 도입한 '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광주·전남에서 과외 자진신고나 학원 불법영업에 대한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15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제도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이후 현재까지 개인교습자의 자진신고 건수는 광주 60건, 전남 21건이 접수됐다. 이 같은 신고건수는 한달 평균 자진 신고 건수를 크게 넘는 숫자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파라치제 시행으로 미신고 개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자진신고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원의 불법영업 관련 신고도 광주에서 14건이 접수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리산 새끼 반달곰 어미곰과 생존 확인

올해 초 태어나 행방이 묘연하던 지리산 새끼 반달곰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가 생후 6개월로 추정되는 이 새끼 곰을 직접 찾아낸 것은 지난 11일. 최근 새끼 곰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려고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벌여온 센터 연구원 3명은 어미 반달곰(8번 개체)에게서 나온 전파발신기의 신호를 추적한 끝에 새끼 곰이 어미와 함께 나무 위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모습을 발견했다.

50m 떨어진 거리에서 파악한 새끼 곰의 몸 길이는 50~60cm, 체중은 8~9kg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